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2)

로마서 강해 1, 2 (유익회 목사)를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16a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문화들이 교회를 통해 들어왔으니, 교회는 세상 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곳이었고, 교회는 세상 보다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약 3%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통 한 반에 30명이라고 잡는다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겨우 한 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한 반에 한 명이라는 비율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한 명마저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적으로 촌스러우며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나빠진 것도 한 몫을 하는데, 이제는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로마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무척이나 동경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의 문화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3~400년 전 그리스에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장들이 최고의 그리스 철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 ‘멋진 철학’과 비교해 보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내용은, 세상

적인 눈으로 볼 때 무척 초라하고 수준 낮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엄청난 것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 (1) 〉

16b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위의 구절은 매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복음이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므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16절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16절의 강조점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과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비운의 공주 율리아]

로마제국은 약 500년간 황제 없이 원로원이 나라를 다스리던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첫 황제가 되면서 제정시대를 열

었는데,¹ 그의 권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로마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왕권을 ‘자신의 핏줄’에게 물려주는 것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섞인 아들이나 손자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의 혈통을 타고난 남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율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로마제국의 첫 공주가 되는 셈입니다. 아들에게 왕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한 아우구스투스는 손자라도 얻기 위해 율리아를 여러 번 강제 결혼시켰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정신적 충격이 되었는지, 그녀는 결국 방탕한 삶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통법’입니다.² 한 여인이 간통한 사실이 발각되면 외딴곳으로 추방한다는 내용인데, 만일 친정 아버지가 딸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그 아버지까지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딸 율리아가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아우구스투스라 할지라도, 자신이 만든 법을

¹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였던 가이사(카이사르)는 일종의 ‘비공식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황제라고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² 간통법을 제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출산율’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결혼도 잘 하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한국처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력이 쇠퇴하는 것이 우려되자, 아우구스투스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통법’을 제정하였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독신세’를 물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율리아를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낼 수 밖에 없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게 됩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자신이 만든 법에 어쩔 수 없이 종속되는 이 모습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 머리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율리아가 굶어 죽은 것이 AD 14년 경이었으니, 아마도 그때 예수님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약 AD 57년 전후라고 본다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인들은 이 율리아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었지만, 그 중 아주 유명한 설명 한 가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법 지키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① 하나님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드셨다.
- ②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 ③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만드신 법인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을 무효로 하고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었다.
- ④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도 지키면서 인간들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들 대신 죽음(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위의 설명은 오랜 세월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믿어온 것이고, 어느 정도는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설명대로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이 만든 법에 종속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유배 보낸 것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만드신 법에 종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분**이시며, 그 ‘어떤 것’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법에 종속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황제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권력보다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우선입니다. 국가가 있고 황제가 있는 것이지, 황제가 있고 국가가 있지 않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법 적용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므로, 황제 자신도 법률에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구나 우주 전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자신을 옥죄어 난감하게 만들 법을 애초에 제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간통법’을 만들면서, 나중에 자신의 딸이 그 법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결코 그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죄할 줄 모르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³

³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냐? 또한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드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인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롬1:16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16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 같은데, 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강조했을까요?

율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최고 권력자 아우구스투스의 ‘무능’입니다. 전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핏줄로 후계자를 삼으려는 간단한 소원조차 그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 율리아를 어쩔 수 없이 외딴 섬에 유배 보내야 했습니다. 즉 황제조차도 국가라는 시스템과 법률 아래 있다는 것, 황제의 능력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율리아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다.

비슷한 예로,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전능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① 그 돌을 들 수 없다면 전능한 것이 아니고, ② 그런 돌을 만들 수 없어도 전능한 것이 아니니, 결국 하나님은 전능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모순점을 논하기 전에 ‘전능’이 무엇인지 먼저 논해야 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전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의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해본 적도 없고, 전능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도, 제대로 관찰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의 개념은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척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돌’에 관한 이 모순적 질문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발생하는 모순입니다. ‘돌을 들 수 없어도 문제고, 그 돌을 만들 수 없어도 문제인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능의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개념조차 조율하시는 분이기에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전능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강해 25 8장[5]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법칙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나님에게는 수천 수만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방법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며, 완악한 인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이보다 더 은혜롭고, 이보다 더 감사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 즉 ‘신의 한수’였습니다.

〈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2) 〉

1:17a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6절에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17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경우와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율법] 인간이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율법 하나 하나를 지킴으로써 의를 ‘이룩해 내야’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사람이므로, 율법을 다 지킨 후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이룩해 낸 ‘사람의 의’인 것임

니다.

[복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이란 주님이 이미 이룩해 놓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주고 받듯이, 주님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의로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복음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 내야 함	‘의로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심
만일 인간이 율법을 지켜낸다면 그것을 이룩한 인간의 의가 드러남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우리는 받기만 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

율법은 ‘의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은 ‘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의로움 그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17b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단계별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 ②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믿음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 ③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면 믿을 수 있는가? 분석이나 연구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 영적인 현상을 믿는 믿음은 결코 그런 식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 ④ 그러면 믿음은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가?
- ⑤ 첫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것조차 믿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에 비교하자면, 닭도 믿음이고 달걀도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란 영적인 현상이므로 인간의 언어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맨 처음 믿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도 믿음이다.
- 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순환논리 혹은 모순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 설명 외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17c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7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은, 종교 개혁 이전에는 크게 주목을 받던 구절이 아닙니다. 본 절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마틴 루터가 ‘타의 체험’을 한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마틴 루터 1 - 서원 기도]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투사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걸 수박에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로마 카톨릭과 투쟁을 벌였고,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니, 투사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은 의외로 겁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의 원래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길을 가다가 바로 옆에서 큰 벼락이 치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마도) 겁쟁이였던 그는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성 안나여⁴, 저를 살려 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끝난 후, 그는 안전하게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것은 성 안나가 아니라 주님이셨지만, 어쨌든 그는 서원을 지켜서 그는 결국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마틴 루터 2 - 계단 오르기]

사제가 된 그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해 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계단 오르기’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스킴라 산타 성당에는 유명한 ‘28

⁴ 미신이 만연했던 중세시대에는 각 업종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광산업의 수호 성인은 성 안나였고, 그래서 그는 성 안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로마로 가져온 것인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이 계단을 올라가서 빌라도 앞에 섰다는 전설이 있는 계단입니다.⁵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이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계단을 ‘성물’로 생각하여 계단 전체를 뜯어서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루터 역시 이 계단을 올라가 봤지만,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마틴 루터 3 - 탑의 체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한 성당 고탑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된 연구와 묵상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할 때, 로마서 1:17절의 말씀이 그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

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만한 말씀의 체험이었습니다.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탑의 체험’이라 부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⁵ 전설일 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루터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율법도 만드셨으며,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규정하시고, 심지어 구원의 방법까지 결정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출판 예정 중인 본 문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무료 PDF로도 제작되어 보급됩니다.
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42-910097-82405 (헤세드문서선교회)

무료 PDF는 헤세드교회 웹사이트 (<http://hsdch.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